



해외사업

2022년 지원결과 보고



Save the Children

CONTENTS

2022년 해외사업 성과	3-4p
교육사업	
에티오피아 학교 밖 아동 교육사업	5p
코트디부아르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사업	6p
세이프백투스쿨(Safe Back to School & Learning Fund)	7-9p
보건영양사업	
라오스 모자보건 시스템 강화사업	10p
모잠비크 소외열대질환 관리사업	11p
베트남 신생아 살리기 사업	12p
에티오피아 면역 강화 사업	13p
2023년 해외사업 목표	14p

2022년 해외사업 성과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440억원**의 예산으로 전 세계 **22개국**의 **2,986,421명**의 아동과 가족을 지원했습니다.

신생아를 살리고 산모의 건강을 보장하는 **보건영양사업**,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 아동과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결연사업**, 식량 위기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생계지원사업**, 폭력과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사업**과 같이 아동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력분쟁 등 인도적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인도적지원사업**,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후위기대응사업**까지 세계 곳곳에서 아동과 아동의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사업명	사업비	
	금액(원)	비율(%)
보건영양	8,161,485,181	19%
교육	11,969,822,204	27%
해외결연*	10,643,778,143	24%
생계지원/아동보호	774,835,894	2%
인도적지원**	11,357,642,659	26%
기후위기대응	1,185,401,200	3%
합계	44,092,965,281	100%

* 해외결연 사업보고서 발행 예정 (2023년 10월)

** 인도적지원 사업보고서 발행 (2023년 7월)



보건영양사업

모든 아동은 건강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라야 합니다. 아동에게 건강한 환경은 모성 건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아시아 3개국(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5개국(말리, 우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모잠비크)에서 보건영양사업을 했습니다. 보건 접근성이 낮은 베트남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신생아 살리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라오스 응오이, 비엡캄 지역 72개 마을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 상태 개선을 지원하여 신생아 및 영유아 사망률을 낮췄습니다. 방글라데시 가이반다에서는 모성 건강 지원을 위해 10,403명에게 산전관리, 1,684명에게는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연간 986회의 이동 진료를 했습니다. 말리의 요로쏘 지역에는 분만실, 진료실, 대기실, 화장실, 수도시설 등을 갖춘 보건소를 건축했습니다. 우간다의 분디부쵸, 은토로코 지역의 마을 19곳에서는 이동 진료를 포함한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고, 에티오피아의 감벨라 지역의 마을 7곳과 난민 캠프 3곳에서는 아동 대상 예방접종을 향상을 지원했습니다. 모잠비크 나칼라 포르토, 나칼라 벨라 지역 주민 141,253명을 대상으로 화학적 예방요법(화학약물을 사용해서 전염병의 감염이나 발병을 예방하는 방법) 캠페인을 진행하고, 의료진의 직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교육사업

배움은 아동의 권리이며, 아동의 잠재력은 교육을 통해 피어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아시아 3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에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발달권을 지켜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손실을 겪은 베트남, 캄보디아 아동에게 지속적인 학습 보장과 학교 복귀를 지원했습니다. 베트남 아동 5,932명, 캄보디아 아동 14,402명이 학습 격차 해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빈곤률이 높은 네팔의 바라 지역에서는 빈곤 가정의 소득을 지원하고 기초교육 접근성을 향상하는 기초교육지원통합사업을 1,218가구, 8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의 감벨라 지역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접근성 증대 사업을 수행하여 30개 학교, 총 8,475명 아동이 다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아방그루, 봉구아누 지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675명 아동에게는 취·창업 멘토링을, 137명 아동에게는 인터넷을 제공했습니다.



생계지원사업

우간다에서는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 보내기 캠페인과 생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의 농·목축 가정에 지속적으로 영양가 있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계경제분석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948kg의 동부콩 씨앗을 3,772가구와 7개 보건시설에 제공했습니다. 또한, 염소 보호자 440명과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염소 질병 관리를 위한 발열 감지, 진드기 및 구충 관리, 축사, 염소 먹이 등 각 가정에서 염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염소 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후위기대응사업

기후위기는 아동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는 베트남 까마우성과 바누아투 암바에섬에서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기후 및 재난 위기 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 맞춤형 기후 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 생계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를 대상으로 재난재해대응 지식과 기술 교육, 캠페인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학교 밖 아동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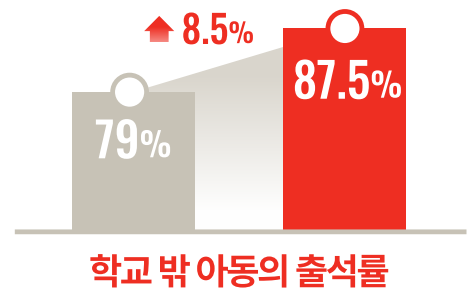
2022년 기준, 총 10,125명 참여

1 배경/목적

- 에티오피아의 서부에 위치한 감벨라(Gambella) 지역은 인구 절반 이상이 남수단 난민으로, 난민 아동의 50% 이상은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합니다. 또한, 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한 교실을 70~100명이 사용하고, 교과서, 공책 등 학습 자료가 부족합니다.
- 본 사업의 목표는 학교 밖 아동을 학교에 등록하고, 교육 환경과 수준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 ※ Education Above All(에듀케이션어보브올)과 파트너십을 통해 전세계 학교 밖 아동 등록을 목표로 하는 Educate A Child(에듀케이트어차일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 주요 성과

- 학교 밖 아동의 출석률은 79%(2020년)에서 87.5%(2022년)로 8.5%p 증가했습니다.
- 여아가 생리 기간에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1,800명에게 위생 키트(생리대, 속옷, 빨래 비누, 목욕 비누 등) 4,600개를 제공했습니다. 학교당 대표 10명을 선정하여, 총 300명에게 생리대 사용 방법을 교육했습니다.
- 68개의 교실을 지어서 임시로 만든 진흙 건물이나 나무 아래에서 수업을 듣던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 30개 학교에 독서 코너 90개를 만들고, 도서 900권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책 읽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새로 지어진 학교



다양한 책으로 채워진 독서 코너

코트디부아르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사업

2022년 기준, 총 2,202명 참여

1 배경/목적

- 코트디부아르는 2015년부터 6~16세를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의무 교육 제도가 늦게 마련됨에 따라, 청소년들은 문해력, 취·창업을 위한 역량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특히 아방그루(Abengourou)와 봉구아누(Bongouanou) 지역의 14~24세의 실업률은 27%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14~24세)을 대상으로 한 사전직무훈련 및 취·창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생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성과

- 총 675명의 훈련생이 사전직무훈련을 이수하였고, 수업에 결석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보충수업을 제공했습니다. 훈련생 모니터링을 지속한 결과, 675명 전원이 사전직무훈련을 이수함으로써 100%의 출석률을 기록했습니다.
- 직업기술훈련생 총 137명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연계했습니다.
- 1기 사업 훈련생 중 850명을 2기 사업의 수혜자로 선정하였고, 직업기술훈련과 창업 훈련을 지속했습니다.



사전직무훈련에 참여 중인 아동들



세이프백투스쿨

(Safe Back to School & Learning Fund)



2022년 기준, 총 15개국 178,058명 지원

1 배경/목적

- 코로나19로 전세계 약 16억 명의 아동이 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특히 저·중소득 국가의 교육 빈곤이 증가하여 10세 아동 중 약 70%가 간단한 글자도 읽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을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이 학교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본 기금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전 세계적 교육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기후 및 분쟁 등으로 발생하는 아동의 다양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성과

1) 단기 집중 보충 수업(CuC, Catch-up Club)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로 발생한 아동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연 후에도 아동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13주 과정의 단기 집중 문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CuC 문해 교육 전에는 참여 아동 중 약 23%만이 문장을 읽을 수 있었으나, CuC 참여 이후에는 약 82% 아동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야기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도 평균 4%에서 22%로 상승했습니다.

2) 아동 맞춤형 통합 지원(CONNECT, Community-level Integrated Case Management)

아동의 지속적인 학업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아동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교육, 생계, 심리 안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CONNECT에 참여한 아동 중 약 80%가 학교로 안전하게 복귀하였고, 절반이 넘는 아동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기본 문해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3) 비대면 수업 효과 검증(ReAL Toolkit, Remote Assessment Learning Toolkit)

코로나19로 다양한 원격 교육이 시행되었지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세이프더칠드런은 온·오프라인 상황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설문 도구(기본 문해, 산수 능력, 사회정서 발달 정도를 측정하여 원격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방식)를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원격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전세계적으로 ReAL Toolkit를 소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원격교육의 효과가 검증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이프백투스쿨

(Safe Back to School & Learning Fund)

지원 사례:

방글라데시

라베야(Rabeya)는 방글라데시에 사는 10살 아동입니다.

라베야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직후 코로나19가 발생하였고,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휴교 기간에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약 2년간의 휴교 후 학교가 다시 문을 열어 3학년으로 학업을 시작했지만, 글을 읽고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라베야는 CuC 등록을 망설였습니다.

세이프더칠드런은 가정 방문을 통해 CuC를 자세히 설명하고,

라베야와 가족을 오프닝 행사에 초대해 라베야가 공부할 환경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라베야는 Cuc 수업에 참여한 첫날에는 낯설고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노래 부르고 게임 등으로 구성된 수업에 점차 흥미를 보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글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CuC(단기 집중 보충 수업)에 참여 중인 라베야 (왼쪽에서 두 번째 아동)

세이프백투스쿨

(Safe Back to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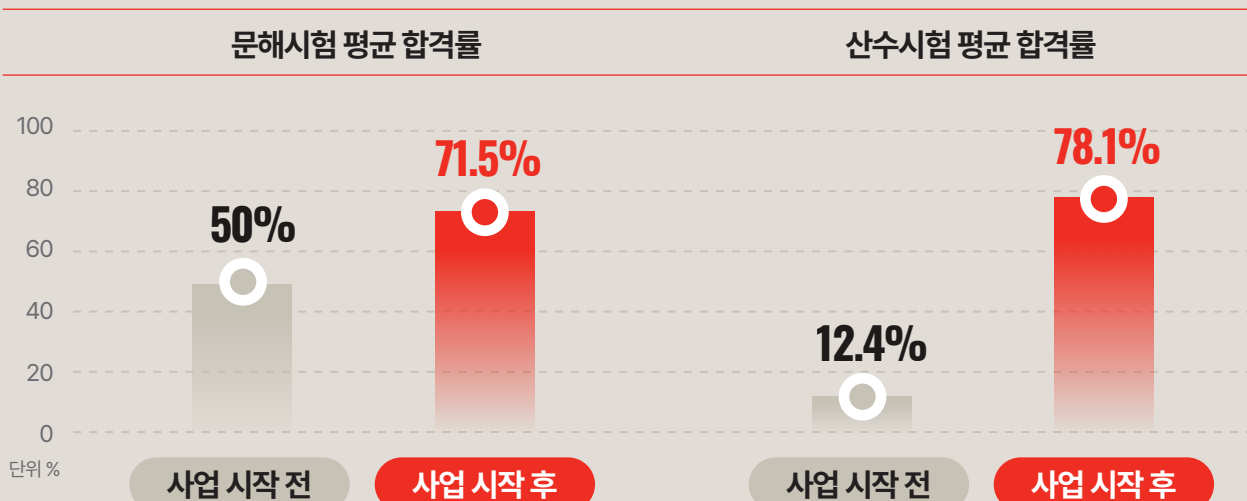
지원 사례: 베트남, 캄보디아

세이프더칠드런 코리아는 2021년부터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학습 지속 및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꽝빈성(Quang Binh) 내 꽝차익(Quang Trach)과 보차익(Bo Trach) 지역에 위치한 1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이프더칠드런은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아동이 참여하여 긴급상황(교내 화재 발생, 홍수 또는 낙뢰 발생 등) 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가 각 학교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이는 꽝빈성교육훈련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운영절차 수립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꽝빈성교육훈련청은 더 많은 학교가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활동을 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타 지역에 적극 소개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캄퐁츠낭주(Kampong Chhnang) 내 캄퐁트라락(Kampong Tralack), 사마키 민체이(Samaki Mean Chey), 롤리아비어(Rolea Bier)와 보리보(Boribou) 지역에 위치한 32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 결과, 아동의 문해력 및 산수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32개 학교 중 이번 사업을 통해 세이프더칠드런의 교육 지원을 처음 받게 된 12개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능력 향상이 가장 컸습니다. 12개 초등학교의 3학년 문해시험 평균 합격률이 사업 시작 전 50%에서 71.5%로 향상했고, 산수시험 합격률은 12.4%에서 78.1%로 상승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12개 초등학교의 3학년 평균 시험 합격률



라오스

모자보건 시스템 강화사업

2020

2021

2022

2022년 기준, 총 18,292명 참여

1 배경/목적

- 라오스 북부에 위치한 응오이(Ngoi)와 비엡캄(Viengkham) 지역은 소수민족 거주율이 높은 지역으로, 주민의 60% 이상이 크무족과 몽족 등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고유 전통 문화와 관습을 고수하고 민족어를 사용함으로써, 빈곤 정책 및 제도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두 지역 대부분이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로, 전기, 수도와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육, 위생 및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 기초보건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이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를 통한 기초보건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성과

- 마을에서 보건소까지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산간벽지 마을에 방문하여 산전·산후관리, 가족 계획, 아동 영양 상담, 아동 성장 모니터링, 외래 진료, 예방접종, 보건 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기초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영유아·모성 사망률과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연간 4회 이상 정기적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 마을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산전·산후관리, 안전한 출산, 모유수유, 영양, 위생 등과 같은 모자보건 및 영양 관련 기초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72개 마을에서 총 510명(이 중 여성 301명, 전체 인원의 59%)의 마을자원봉사자가 참여했고, 각 마을에 평균 5명 이상의 산모를 도울 수 있는 인력을 육성했습니다.
- 정보교육 자료 패키지(1,000일 가정 방문 포스터, 모자보건 그림 카드 등), 성장 발달 측정 포스터, 캠페인 참여 독려용 물품 등을 제작하여 마을자원봉사자에게 배포하고, 올바른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여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아동 성장 모니터링



이동진료실에서 실시하는 산전관리

모잠비크 소아열대질환 관리사업



2022년 기준, 총 136,168명 참여

1 배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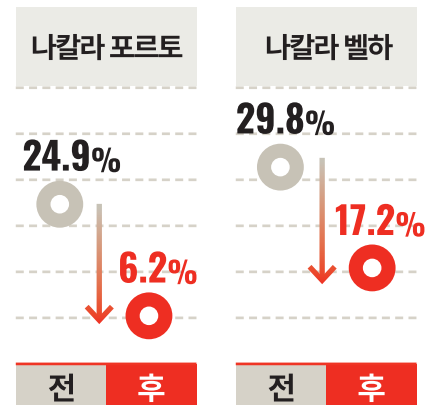
- 모잠비크는 높은 수준의 빈곤과 각종 전염병으로 인해 질병 부담이 높은 국가로, 특히 남풀라(Nampula) 지역은 림프사상충과 주혈흡충, 토양매개성기생충의 감염 위험이 높아 감염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는 곳입니다. 소외열대질환은 치사율이 높지 않으나 오랫동안 방치하면 아동의 경우 성장 부진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모잠비크 보건 분야에서는 소외열대질환이 우선 순위에 있지 않아 국가적 지원이 적고, 이로 인해 보건인력의 질환관리 경험과 기술적 이해가 높지 않습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소외열대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인력의 교육, 식수위생(WASH) 시설 개선 및 지역사회인식개선을 통해 소외열대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데 있습니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국제질병퇴치 기금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2 주요 성과

- 매년 약물투여를 실시한 결과, 나칼라 포르토(Nacala Porto) 지역의 토양매개성기생충 유병률이 24.9%에서 6.2%로 감소하였고, 나칼라 벨하(Nacala-a-Velha) 지역에서는 29.8%에서 17.2%로 감소했습니다.
- 지역 보건 요원은 2,437회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7,596개의 질병 사례(나칼라 포르토 지역: 11,211개, 나칼라 벨하 지역: 6,385개 사례)를 보건 시설로 전달했습니다.
- 각 보건시설에서 분기별로 지역 보건 요원의 활동 평가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데이터 공유, 활동 기획, 활동 중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국 전문 인력들은 사업기간 동안 19개 보건시설 및 20개 지역사회에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건인력과 지역 보건요원 활동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토양매개성기생충의 유병률 (매년 약물투여 실시 결과)



질병 예방법을 발표하는 보건·위생 동아리



채혈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의료진

베트남 신생아 살리기 사업



2022년 기준, 총 1,295명 참여

1 배경/목적

- 베트남의 선라성(Son La)과 닥락성(Dak Lak)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은 문화적·지리적 특성상 모자보건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습니다. 모자보건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 요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생아와 모성이 출산 전후 사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 소수민족의 모자보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선라성과 닥락성 지역 내 소수민족 신생아와 산모의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성과

- 2022년 9월 세이프더ildren 코리아에서는 모자 60,250개를 각각 30,125개씩 선라성과 닥락성으로 보냈습니다. 모자는 가정 방문 및 보건시설 내 검진을 마친 신생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 20개의 코뮌*에 접근이 어려운 마을 50곳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및 소수민족어로 제작된 포스터, 전단지, 오디오 파일 등을 활용하여 산전·산후관리 및 신생아 돌봄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행동변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400명 이상의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고위험 신생아 치료, 모자보건 서비스,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행동변화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사업 지역 내 조산사 및 보건인력으로 구성된 총 20개의 이동진료팀이 조성되었고, 이동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포함하여 소변 검사지, 철분제 등 각 팀의 필요에 따라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 코뮌(Commune): 지역을 구분하는 단위



베트남어로 제작된 포스터를 보고 있는 산모들



보건시설에서 출산 직후 입원해 있는 산모

에티오피아 면역 강화 사업



2022년 기준, 총 130,809명 참여

1 배경/목적

- 에티오피아의 서부에 위치한 감벨라(Gambella) 지역은 정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 지원이 적습니다. 백신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보건시설로부터 5~15km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타고 올 수 있는 오토바이가 부족합니다. 또한,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서비스 교육의 기회가 적고, 예방접종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로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높습니다.
- 11개 지역과 난민캠프 3곳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사업지역 내 아동의 예방접종률 10% 향상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을 감소시키고, 질 높은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접종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기금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2 주요 성과

- 지역사회 및 난민캠프의 보건인력 575명에게 백신접종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받은 5세 미만 아동은 총 118,010명입니다.
- 자궁경부암 2차 예방접종을 받은 14세 여아는 총 3,940명입니다.



예방접종을 기다리는 산모들과 아동들



2023년 해외사업 목표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2023년에도 3개년 (2022-2024) 추진 전략에 따라 아동이 사회 안전망 속에서 건강한 삶을 시작하고, 배움을 지속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약 520억원의 예산으로 핵심 추진 국가인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베트남, 우간다의 보건영양, 교육, 해외결연, 생계지원, 아동보호, 기후위기대응 지원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가운데 인도적지원이 전체 사업비의 42%, 해외결연이

18%, 보건영양이 16%를 차지합니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대응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기후대응 및 생계지원 사업의 비중을 높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후위기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테크(Tech) 기업과 연계하여 외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해수면 상승으로 염수 침해가 심해져 식수를 구할 수 없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악화 상황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 등

사업명	사업비	
	금액(천원)	비율(%)
보건영양	8,495,967	16%
교육	7,306,797	14%
해외결연	9,648,000	18%
생계지원/아동보호	2,065,693	4%
인도적지원	21,776,413	42%
기후위기대응	3,004,883	6%
합계	52,297,753	100%

2022년 한 해 동안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을 지켜주신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갈 수 있었고,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인도적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아동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ave the Children